
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설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의 컴퓨터화

(computerization & Society)나 컴퓨터의 민주화나(Democratization & Computer)의 양극의 조화를 이룰 때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주제발표 I

정보문화와 윤리적 과제



이 기 성
(신구전문대 교수)

정보윤리의 현실

음란파일의 유포와 반기

전자계시판에서는 상대방의 ID로 파일을 보내거나 공개자료실에 파일을 올려놓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때 파일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부방 컴퓨터에 음란 독버섯’, ‘사설전자계시판 외설 프로 무차별 전송’,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전자계시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

면 부모들이 어떻게 느낄까? 컴맹인 엄마는 당장 컴퓨터를 못쓰게 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요즘 늘고 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자동차는 왜 못쓰게 하지 않는가. 특히 음주 운전 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나기 쉬운데, 온 국민이 술을 못먹게 할까? 아니면 모든 술집을 없애버려?

‘자동차’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음주 운전이 나쁘다. 술 깬 다음에 혼내주면 더 착해질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음란 그림을 주는 사람이 나쁘다. ‘컴퓨터 통신’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

끌고 나갈 우리의 희망들이기 때문이다.

채팅

하이텔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편지를 읽고 있는데 채팅실에서 채팅 요구가 들어오는 실정을 소개

한다. 또 채팅 중간에도 모니터 화면에 마구 나오는 똑같은 문자들, 일명 ‘도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이텔의 경우에는 ‘me n’를 하지 않으면 안심하고 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다.

[그림 1] 하이텔 공개편지 검색중 나타나는 일명 ‘도배현상’의 사례

»번호/명령(H, F, B, P, T, GO, HI, Z, X)» me y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목 : 지금은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

1373/1402 보낸인 : 장우진 (chwlj681) 06/04 21 : 35 조회 : 5(1/1) 교수님 고마운줄 아세요(죄송 말투가 거칠어서 ...)

저는 지금 채팅으로 91.9MHz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 ! ! !

번호/명령(H, F, B, P, T, GO, HI, Z, X)»

74번 대화방(chat)에서 MrCom님이 귀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74번 대화방(chat)에서 tech1213님이 귀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공개 메일(게시판 메일)

전자게시판에서 공개 메일을 본다는 것은 마치

운동장의 게시판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여러 명이 읽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하이텔 전자게시판에

[그림 2] 하이텔 고소영의 에프엠데이트 옴브즈맨 코너 저속 공개메일 사례

제목 : 야, 관뉘라. 관뉘 ...

476/482 보낸인 : 김원욱(SUJI) 01/17 21 : 13 조회 : 20(1/1)

텔런트는 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씨부랄 니가 왜 DJ로 나서니 ?

무슨놈의 노래는 안 소개해주고 말만 그렇게 많이 씨부라려 !

니가 노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너같은 년 때문에 낙타은 사람은 노상 미국방송만 ㄸ루어야 한단 말이야.

노래만 소개해 주면 됐지 무슨 놈의 초대손님이고 나발이고 ...

에이, 골빈년야.

제목 : 밑글 ...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 ! ! !

477/482 보낸인 : 김장훈(IL93) 01/17 23 : 15 조회 : 9(1/1)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막말, 욕말로 하이텔과 mbc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SUJI 사과하십시오

479/494 보낸인 : 이성호(sungho) 01/18 02 : 47 조회 : 51(1/1)

사과하십시오.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 일부러 전화비들여가며 저짓하는 작자들 이해가 안가 ...

는 여러 개의 게시판이 있다. 그 중 한개인 '고소영의 에프엠데이트' 게시판을 살펴본다. 이 게시판은 엠비시 에프엠 라디오(MBCFMI)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보우리의 문제점과 대책

컴퓨터통신 이용자 연령층

금년(1994년 4월) 현재로 천리안 전자게시판에는 13만명, 하이텔 전자게시판에는 23만명(유료 12만명), 포스서브 전자게시판 2만명이 가입되어 있다(매일경제신문 4월 4일자). 이 세군데에 총 38만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중복 가입자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천리안 가입자 1만2천명을 조사한 것을 보면 20대와 30대가 64%, 40대와 50대가 22%로서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세 이하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었으나, 0.5% 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채팅을 즐기는 청소년층이 정액제인 하이텔 쪽으로 몰렸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0.5%는 국내PC통신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문제점과 대책

정보우리면에서 문제점을 컴퓨터통신의 예절 분야를 예로 들면서 살펴본다. 첫째는 파일의 올리기(업로드)와 받기(다운로드) 문제, 둘째는 채팅의 문제, 셋째는 개인메일 문제, 넷째는 공개메일 문제등 4분야로 나누어 알아본다.

파일의 올리기와 받기

파일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이 내용이 송수신자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

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종이책이나 디스크책(disk book)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화면책(screen book), 화면 소설, 전자신문, 주문형책(BOD), 주문형비디오(VOD)는 파일 형태로 정보가 움직이므로 전자게시판에서 파일에 관련된 문제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화면 소설의 경우, 한수산님이나 이순원님같은 유명 작가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명작가의 경우에는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전자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다. 유명작가인 경우에도 마광수님같은 경우에 외설이나 외설이냐의 판단 기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화면책(화면 소설책, 화면 단행본)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매일 연재되는 화면 소설의 일부분은 아직 완전한 한개의 파일로 완료되기 이전이므로, 공개메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내용 문제 이외에, 파일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또, 공개자료실에다가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올려놓거나, 버전만 바꾸어 올려놓아 이 파일을 받은 수신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용량이 큰 파일은 압축을 하여 업로드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채팅

채팅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디 도용, 안시를 이용한 아이디 위조, 화면에 도배하기, 반말, 상대방 호칭에 관한 것이다. 채팅은 처음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예의이다. 또, 선로 사정상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몇 초 지난 후에나 전송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할 말(한 문

장)이 끝났는 지를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은 엠파게시판을 사용하던 엠파 회원들이 약속한 방식인데 요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88년 엠파게시판을 정식으로 개설하기 전까지는 와일드켓을 이용한 사설게시판이나 데이콤의 에치메일(한 메일) 게시판에서 전자우편을 하였는데, 당시는 상대방의 호칭을 ‘씨, 선생님, 님’ 등으로 부르다가 차차 ‘순백님, 기성님’처럼 ‘님’을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되었다.

채팅실에서는 잠담을 최소화시키야 자기와 상대방의 통신료를 절약할 수 있고, 남을 비방하거나, 반말을 사용하거나, 특히 욕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 채팅시에 상품 광고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현재 개설된 채팅방의 분위기에 맞지않는 손님을 초대해서는 안된다. 현재 40대가 모여서 채팅중인데, 자기만 아는 국민학생을 초대한다면 40대의 공통 대화가 어색하게 될 것이다. 남자의 경우, 여자 이름만 보면 초대한다든가,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자기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해도 안된다. 특히 미국의 정신병자의 예에서 보듯이 채팅으로 신원을 알아내어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 또한 채팅시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불량 상품의 통신판매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금을 보내라하고 그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자들은 채팅시 아이디를 남의 것을 훔쳐서 사용하

므로 아이디의 진짜 소유자에게 항의해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디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밖에 안시를 사용하여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화면을 어지럽히는 것은 실례이고, 일반 문자가 아닌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예의에 벗어난다.

개인 메일과 공개 메일

개인 메일이나 공개 메일이나 간에 맞춤법에 맞추어 문장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러 맞춤법에 맞지 않도록 써서 귀엽고 새로운 맛을 줄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애교로 볼 정도로 아주 일부분에만 사용해야 실례가 안된다. 채팅이나 전자우편용 약어나 속어는 맞춤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 이만 안녕’을 ‘그럼 2,000 안녕’으로 쓰는 정도는 괜찮다. 미리 메일을 작성하여 편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한글 코드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 이야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라면, ‘편지보내기’를 사용하면 ‘조합형 코드’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완성형 코드’로 메일을 저장시켜놓아야 한다. 메일을 작성할 때 쓸데없이 리턴 키를 누르거나, 별뜻없이 한 줄이나 두줄씩 띄어서 편지의 길이를 늘리는 것은 통신료를 늘리기도 하지만, 모니터 화면으로 읽을 때 짜증이 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